

어느 책도독의 각서

김명인 | 문학평론가 · 《황해문화》 편집주간

직업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나로서는, 가장 부러운 게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이다. 이력서에나 자기소개서에나,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요청 서류나 인터넷의 회원정보란에 이렇다 하게 내세울 취미란 것이 없으면서도, '교양 없다' 소리 들을까봐 독서가 취미라고 쓰는 안스러운 경우 말고, 정말 독서를 일상의 노동 시간 외에 가장 즐기는 취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에게 독서는 순수한 쾌락일 것이다. 언제까지 읽어야 한다거나, 꼭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거나, 반박을 해야 한다거나, 비평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도 없이 읽고 싶으면 읽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내던지고 다시 새로운 책을 펼쳐 들고, 좋으면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책상에 앉아서 읽다가 소파에 앉아서 읽고, 방바닥을 뒹굴며 읽고, 화장실에서 읽고 밥 먹다가 읽고 잠들 머리에서 읽고... 노동이 아닌 즐거움으로서의 독서, 한마디로 연필 들고 공책 펼쳐 들지 않는 자유롭고 부담 없는 독서가 나에겐 차라리 하나의 꿈이다.

사실 처음 독서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내게도 독서는 그런 순수한 쾌락의 경험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책을 좋아하다가 독서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 그것이 삶의 방편이 되고, 삶의 행로 자체가 인문학의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일과 일치하게 되면서 내 독서는 쾌락 아닌 고된 노동이

돼버렸다. 그냥 편하게 읽어도 되는 책을 들고도 늘 한 손에는 연필을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다른 사람에게 잠깐 참고삼아 빌린 책에다가도 연필로 밑줄을 긋고 낙서를 끄적이는 실례를 저지르기 일쑤다. 일종의 직업병 경지에 들어선 셈이다. 나는 오늘도 내 좁은 서재 책꽂이에 이중 삼중으로 꽂혀지다 못해 방바닥과 책상 위까지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끔찍한 책들을 바라보며 무계통하고 즉흥적이어도 아무 걱정 없는, 한 손에 연필 들고 자세를 잡지 않아도 되는 진짜배기 '취미'로 독서를 즐기는 백일몽에 잠시 잠겨 본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사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친다. 연필을 들고 노동으로서 책을 읽건, 방바닥을 뒹굴면서 취미로서 책을 읽건 책을 읽는 일 자체가 사치스러운 여유의 산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어쩌다 가 본 노동자 가정들의 빈약하기 그지없는 책꽂이들이 떠오른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 읽을 한두 시간의 여유만 있어도 그들의 책꽂이가 그처럼 빈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자인지 바쿠닌인지 "소유는 도둑질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읽는, 읽어야만 하는 산더미 같은 책은 어쩌면 그들의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할 몫을 빼앗아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올 겨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터전에서 쫓겨나 바람 부는 거리로 내몰릴 거라 한다. 이 겨울 내 계획의 거의 전부는 읽고 쓰는 일이다. 연필이 아니라 내 뺨을 깎아서라도, 내 피를 뽑아 밑줄을 그으면서라도 그들에게서 도둑질한 책들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밑줄 그어지고 낙서 가득한 채로 새봄엔 그 책들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바닥을 뒹굴면서 책을 읽다니! 무심한 시간 속에 고인 정신이 고요히 부패해 간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흥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공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미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